

1965. 6. 2.

친애하는 록펠러 씨:

5월 19일 워싱턴 이스모리아 호텔에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네개의 미국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본인 일행과 오찬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협회 임원 일동이 본인에게 베풀어 주신 후대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은 이 오찬을 마칠 것 같으며 우호적 분위기에
극히 만족 하였습니다.

이 오찬에는 한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될 미국 인사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금번 방미 중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을 이해 해주며 우리들을
초대하신 미국 시민들을 사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찬은 즐겁고 의의 있는 것 이었습니다.

본인은 저와 더불어 귀하와 귀 협회 회원 일동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 정 의

1965. 6. 2.

친애하는 베티미르 장군 :

5월 19일 워싱턴 아스트리아 호텔 에서 장군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다음날 조찬을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워싱턴 아스트리아 호텔 에서 개최된 오찬에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네 개의 미국 단체가 참석 하였음으로 금번 미국 방문이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찬을 계기로 한국을 위한 미국 단체의 활동이 강화 될 것을 희망 합니다.

5월 21일 웨스트포인트 에서 장군의 외손자 맥크리스찬 군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맥크리스찬 군이 앞으로 장군과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금번 귀국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며 의의 있는 것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 목표를 성취하려는 우리 두 나라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희망 합니다.

장군 내외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

정

희

19
D.H.L.

(Translation)

June 2, 1965

Dear General Van Fleet:

I was quite pleased to have a happy reunion with you at the Waldorf Astoria Hotel on May 19, and to have breakfast next day.

I thoroughly enjoyed the occasion in New York and consider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during my state visit to your country since it was participated in by the four American organization interested in our Korea in one way or another. May the occasion serve to speed up their useful activities with or for the Korean people.

At West Point on May 21, I was glad to meet Cadet McChristian, your grand son, and wished that he will become a General Van Fleet some day.

My recent visit to your country was, I believe, very successful and rewarding. I wish that the occasion will mark a turning point in our relations and accelerate our joint efforts to positively attain our common goals.

Please accept our best wishes to you and Mrs. Van Fleet for continued good health and happiness.

Yours sincerely,

/s/ Park Chung Hee

General James A. Van Fleet,
Withlacoochee Ranch
Polk City, Florida
U. S. A.